

# 판로 막히고 빚 쌓이고...농어민 '코로나 삼중고'

### 광주·전남, 학교 급식 줄어 매출 급감...AI·일손 부족도 걱정 지난해 대출 연체 238억 연체율 두배 경중...대책 마련 시급

광주·전남 농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과 집중호우·한파, 조류인플루엔자(AI), 일손 부족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해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농어업인들의 대출 연체율은 2배로 뛰며 심각한 사정을 반영했다.

9일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광주·전남센터에 따르면 이 기구로부터 보증대출 지원을 받은 지역 농어업인들의 지난해 연체금액은 238억2900만원(499건)으로, 1년 전(113억4400만원)보다 2.1배(110.1%) 뛰었다.

보증잔액에 대한 연체율은 0.59%로, 역시 전년(0.29%)의 2배 수준을 나타냈다.

농신보 5개센터는 지난해 1조9747억원, 4만 5457건에 달하는 신규보증을 지원했고, 보증잔액은 4조원을 넘겼다. 한 해 동안의 순신규보증은 7020억원(1만3079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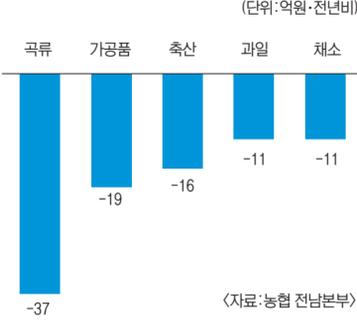
농신보는 농협중앙회가 위탁 관리하며, 내세울 담보가 없는 농림수산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1972년 설립됐다.

전국 28개 센터 가운데 가장 많은 5개 센터가 광주·전남에서 운영되고 있다. 광주와 화순·장성·담양·곡성·영광 등 6개 지역을 관할하는 광주센터와 나주센터(나주·영암·함평), 순천센터(순천·여수·광양·구례·고흥·보성), 전남센터(목포·신안·무안·진도), 해남센터(해남·강진·완도·장흥) 등이 있다.

농신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뿐만 아니라 전남 곳곳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하면서 농민에 대한 금융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농번기가 찾아오면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가의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담보력이 부족한 농어업인들의 대출 연체

■ 전남 농가 지난해 학교급식 매출 감소액 (단위:억원·전년비)



율이 크게 났던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타격과 연계된다.

지역 농민들이 농협 전남지역본부 통해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교 1500곳에 납품한 급식 식재료 매출은 지난해 306억원으로, 지난 2019년 392억원보다 21.9%(-86억원)이나 떨어졌다.

직격탄을 맞은 곳은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곡류 농가였다. 전남 농가의 학교급식 곡류 매출은 지난 2019년 93억원에서 이듬해 56억원으로 39.8%(-37억원) 떨어졌다. 과일 매출은 30.6%(36억→25억) 감소했고, 축산 29.6%(54억→38억), 기타 가공식품 17.3%(110억→91억), 채소 12.5%(88억→77억) 순으로 감소율이 컸다.

개학이 늦어지고 일부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학교급식 납품을 위해 계약재배를 한 농가는 한 순간에 판로를 잃게 됐다.

농협 전남본부는 전남친환경농산물 쇼핑몰(웹) '진주'를 마련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정기구매를 하는 등 15억4600만원 상당 친환경 농산물을 팔아봤지만 매출 타격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그 대상과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은 농어업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과연 어떤 기준을 적용, 얼마 만큼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할 것인지 주목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976.12 (-19.99)
↓ 코스닥	896.36 (-8.41)
↑ 금리(국고채 3년)	1.206 (+0.067)
↑ 환율(USD)	1140.3 (+7.10)



## 광주은행 '명이냥이' 체크카드도 나왔어요

지난해 출시 100일 만에 5000장을 돌파한 광주은행 '명이냥이'가 체크카드로 돌아왔다.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1000만 반려동물 가구 경향에 맞춰 '명이냥이' 신용카드에 이어 체크카드를 최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신용카드는 지난해 5월 나온 뒤 3주 만에 1000장, 100여 일 만에 5000장 판매됐다.

소문난 애견가인 송종욱 행장은 반려동물 가정에 매달 들어가는 사료와 진료비가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점에 착안해 특화 카드 상품을 고안해냈다.

광주은행은 카드사 가운데 유일하게 자신의 반려동물 사진을 카드 앞면에 실는 '사진카드 발급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 명이냥이카드를 들고 반려동물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새로 나온 '명이냥이 체크카드'는 반려동물 관련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와 간식비, 질병 예방·치료를 절약할 수 있도록 애완동물과 동물병원(용품·사료·미용 등) 업종에서 사용하면 해당 금액의 10%를 돌려준다.

이외 온라인쇼핑몰(G마켓·옥션·11번가·티몬·쿠팡·위메프), 커피(스타벅스·할리스·투썸플레이스 등 9개), 편의점(GS25·CU·세븐일레븐·미니스톱·이마트24)에서도 5% 캐시백 혜택이 있다.

'명이냥이 체크카드'도 광주은행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면 발급할 수 있다. 광주은행 모바일 앱(m.kjbank.com)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발급할 수 있다.

김재중 광주은행 카드사업부장은 "신용카드를 발급하기 어려운 일부 학생과 주부 고객들로부터 여럿 요청을 받아 '명이냥이' 체크카드를 만들게 됐다"며 "이 상품을 통해 KJ카드만의 특별한 혜택을 펫팬들에게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봄철 모발 건강 지키세요** 광주신세계 직원이 2층 '아베다' 매장에서 봄철 자외선과 미세먼지에 노출된 두피·모발 건강을 위한 영양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때 장은 오는 14일까지 구매 금액에 따라 여행용 꾸러미를 증정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기아 최초의 전용 전기차 'EV6'가 윤곽을 드러냈다.

기아는 9일 EV6의 티저 영상과 이미지를 처음 공개했다.

앞서 기아는 지난 1월 새로운 브랜드 지향점과 신규 사명과 로고, 슬로건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7개의 새로운 전용 전기차 라인업을 선보인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V6는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를 기반으로 개발한 기아의 전용 전기차 라인업 중 첫 모델이자 새로운 로고를 부착한 차종이다.

우선 전기차에 최적화된 역동적인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형태의 디자인을 구현해 미래 지향적이면서도 독창적인 느낌을 강조했다. 기아는 설명했다.

측면 실루엣은 전면부 후드에서부터 후면부 스포일러까지 간결하면서도 예리하게 다듬어진 라인이 특징으로, 매끄럽게 깎여진 앞 유리(윈드실드 글라스)는 전기차 특유의 역동성을 대변하듯 빠르게 치고 나가는 느낌을 생동감 있게 전해준다.

전면의 주간 주행등(DRL)은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전자 픽셀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무빙 라이트 패턴'을 적용했다. 후면부 리어 LED 클러스터는 EV6만의 차별화된 요소로, 조명의 역할 뿐 아니라 빛을 매개체로 독특한 패턴을 형성해냈다.

기아는 이날 'EV+숫자'로 구성되는 전용 전기차의 새로운 차명 체계를 공개했다. 'EV'는 전기를 의미하는 대표 명사를 활용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자 하는 기아의 의지를 담고, 고객이 직관적으로 전용 전기차 라인업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 차명 EV와 함께 구성되는 '숫자'는 전용 전기차 라인업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을 나타낸다.

기아는 이 같은 차명 체계로 'EV' 차명의 인지도와 친숙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동일한 차명을 적용해 일관성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아는 이날 말 EV6의 온라인 월드프리미어 이벤트(세계 최초공개 행사)를 통해 자세한 EV6의 상품성을 공개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공익관세사 배치...영세 중기 수출 지원 강화

### 광주본부세관 무료 상담 중

광주본부세관은 영세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관세사를 배치해 무료 상담업무를 수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익관세사는 전문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통관,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수출과 관련된 종합컨설팅을 전화상담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제공한다. 현재 광

주 2명을 비롯해 대전과 제주에 각 1명씩 배치돼 무료 상담업무를 수행 중이다.

특히, 광주본부세관은 수출통관 종합지원을 위한 세관의 '찾아가는 수출입기업 지원센터'와 연계해 공익관세사와 합동 컨설팅으로 전문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공익관세사의 컨설팅 관련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관할 세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